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바라는 것 없다

## 교황 “조만간 러 정교회 지도자 만날 것”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교간 화합을 위해 조만간 러시아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전날 키프로스·그리스 순방을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교황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키릴 총대주교와 만남을 고대한다.”며 “다음 주 (러시아 정교회 측) 관계자가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자 (바티칸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서 만날지는 알 수 없다. 핀란드를 생각하고 있지만 확실하기 어렵다.”며 “나는 언제든 가능하다. 러시아를 갈 준비도 돼 있다.”고 부연했다.

교황은 “형제와 대화하고자 할 때 프로토크(규칙) 같은 것은 없다. 형제는 형제”라며 “이는 어떤 규칙보다 앞선다.”고 키릴 총대주교와 만남에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앞서 교황은 2016년 쿠바에서 키릴 총대주교와 얼굴을 마주한 바 있다. 이는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갈라진 1054년 ‘대분열’ 이후 첫 만남으로 기록됐다. 당시 두 지도자는 종교적 통합·단합을 향해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으나 이후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다. 로마가톨릭교회 수장인 교황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이 역시 대분열 이후 처음인 역사적 사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교황이 실제 러시아를 가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통상 교황이 특정 국가를 방문하려면 해당국 정부 수반과 종교기관의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러시아를 가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공식 초청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교황이 제삼국인 핀란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 수는 약 1억 명으로 동방교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황은 2일부턴 4박5일 일정의 이번 키프로스·그리스 순방 때도 현지 정교회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나 종교간 화합을 다지는데 진력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바라는 것 없고 기대도 없고 사로잡히지도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법구경)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존자에 대한 신망이 매우 두터우셨다. 사리불존자는 안거가 끝나고 다른 지방으로 외출을 떠나면서 젊은 비구들에게 부탁을 하였다. 만약에 신자들로부터 가사공양이 들어오면 자신의 것도 한 벌 남겨놓아 달라고 하였다. 이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 해석되어 결국 사리불존자가 공양물에 집착하는 천박한 수행자로 낙인이 찍혀버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신 부처님은 사리불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으시고 대중을 다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사리불에게 젊은 비구에게 가사를 남겨 놓으라고 부탁한 이유를 물으셨다. 사리불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한 신념의 자세로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다.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에 전념하는 도반이 가사가 너무나 남아 추위를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려고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리불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대중은 사리불을 의심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리불은 자신의 부주의한 언행으로 대중을 번거롭게 한 것에 대해서 도리어 깊은 자책을 하였다. 사리불존자는 자신을 오해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동료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보다는 오해를 낳게 한 자신의 행위를 책망함으로써 스스로를 수행자의 길에 한 걸음 더욱 나아가려 한 진솔한 수행자이다.

남 탓 하기 전에 자신 먼저 단속 사



리불존자의 일화는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어느 날 힘든 일을 하고 나서 정사의 복도를 지나가다가 먹음직스럽게 그릇에 담겨 있는 튀김을 발견하였다. 마침 배가 고팠던 사리불존자는 튀김을 맛있게 먹어치웠다. 그러나 그 튀김을 담아두었던 젊은 비구는 사리불이 음식에 탐착하는 탐욕심을 갖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또한 이 일을 들으신 부처님께서 대중과 사리불을 불러서 일의 전후를 밝혀도록 지시하셨다.

사리불은 남의 음식을 함부로 먹은 것에 대해서 깊은 참회를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기를 “맛있는 음식을 누가 원하지 않겠는가?”

사리불존자는 일생을 맛있는 튀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맛에 탐착한 자신의 행위를 단속하였다고 한다. 사리불의 수행은 남을 향하여 원망하기 보다는 언제나 스스로를 가다듬음으로써 자신을 단속하였던 것이다. 남을 향하여 원망을 하거나 분노를 토로하지 않는 사리불에 대해서 대지(大地)와 같이 말이 없고 일체에 동요됨이 없는 부동(不動)의 성자라고 칭찬하고 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초연한 삶을 살기는 사리불의 도우(道友)인 목

련존자도 마찬가지이다. 두 사람은 앞사지 비구를 만나서 발심하여 부처님 승가에 들어온 이후에도 변함없는 좋은 도반으로서 서로를 탄마하였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지에서 사리불과 목련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할 때면 부처님께서는 말 없는 두 사람을 위하여 대중을 모이게 하였고 오해를 풀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그때마다 이 두 사람은 남을 원망하기 보다는 오해를 일으키게 한 자신들의 행위를 자책함으로써 더욱 참신한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가다듬어 갔다.

우리는 말로는 욕망을 끊어버렸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수행자를 자주 보게 된다. 그들은 오래된 습관처럼 버려야 할 탐욕의 찌꺼기를 한 편에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다. 욕망은 날이 오랏수룩 집착이 되어 자신의 주위를 맴돌게 된다. 이러한 집착은 ‘한 칼로 두 동강[一刀兩端]’을 내어 버리듯 자신의 의지로 내쳐버릴 때 비로소 자취를 감추게 된다.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에 집착하는 법집(法執)까지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물며 그 나머지 잡다한 욕망은 쓸어버릴 하찮은 것이며, 무상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연기법(緣起法)이 근본이 된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강을 건너고 나서는 뗏목을 버리고 가듯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쓸데없는 욕망에는 더더욱 초연히 벗어나는 삶을 사리불존자의 일화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다.

-본각스님-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 숨은그림찾기 정답